#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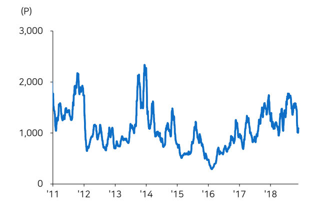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 업체명 | 시가총액 (십억원) | 외국인지분율 (%) | 종가 (원) | 1D (%) | 1M (%) | 3M (%) | YTD (%) | PER(x) | | PBR(x) | | ROE (%) | |
|---|---|---|---|---|---|---|---|---|---|---|---|---|---|
| | | | | | | | | 18E | 19E | 18E | 19E | 18E | 19E |
| 현대중공업 | 9,441.1 | 16.5 | 136,500 | 3.0 | 17.7 | 15.2 | 42.3 | 95.1 | 45.6 | 0.7 | 0.7 | 0.7 | 1.4 |
| 현대중공업지주 | 6,473.9 | 20.5 | 397,500 | 1.4 | 15.6 | 5.3 | 4.3 | 5.4 | 4.5 | 0.7 | 0.6 | 14.1 | 14.7 |
| 현대일렉트릭 | 557.8 | 4.4 | 27,400 | 9.2 | -9.6 | -10.7 | -51.9 | 2.6 | 2.3 | 0.2 | 0.2 | 9.3 | 9.7 |
| 현대건설기계 | 930.9 | 6.3 | 47,250 | 3.7 | -0.4 | -22.9 | -44.1 | 3.0 | 2.2 | 0.3 | 0.3 | 11.7 | 13.9 |
| 삼성중공업 | 4,680.9 | 17.9 | 7,430 | 0.0 | 10.2 | 4.5 | 14.9 | 46.9 | 23.2 | 0.5 | 0.4 | 1.0 | 1.9 |
| 대우조선해양 | 3,709.3 | 11.4 | 34,600 | -0.1 | 25.4 | 20.8 | 148.9 | 10.0 | 14.8 | 1.0 | 1.0 | 11.4 | 5.7 |
| 현대미포조선 | 2,180.0 | 9.2 | 109,000 | 2.8 | 21.9 | 9.8 | 38.5 | 23.5 | 17.0 | 0.8 | 0.8 | 3.6 | 4.8 |
| 한진중공업 | 186.1 | 6.1 | 1,755 | 4.5 | -1.4 | -31.6 | -47.0 | 35.3 | 8.8 | 0.3 | 0.2 | 0.7 | 2.8 |
| 현대엘리베이터 | 2,447.0 | 21.8 | 90,100 | -1.0 | 9.3 | 1.8 | 65.6 | 15.9 | 15.5 | 2.2 | 1.9 | 14.6 | 13.3 |
| 두산밥캣 | 3,513.7 | 25.3 | 35,050 | 1.2 | 0.4 | -1.3 | -0.8 | 12.8 | 12.1 | 1.0 | 0.9 | 7.4 | 7.6 |
| 현대로템 | 2,231.3 | 1.8 | 26,250 | -1.7 | 16.7 | -2.4 | 40.0 | 33.9 | 23.1 | 1.5 | 1.4 | 4.5 | 6.3 |
| 하이록코리아 | 240.3 | 47.8 | 17,650 | 0.9 | -27.1 | -27.7 | -21.6 | 8.0 | 7.3 | 0.7 | 0.6 | 8.8 | 9.0 |
| 성광벤드 | 311.7 | 15.5 | 10,900 | 0.5 | -11.0 | -6.4 | 9.2 | 963.5 | 39.1 | 0.7 | 0.7 | 0.1 | 1.8 |
| 태광 | 308.7 | 12.3 | 11,650 | 1.3 | -10.0 | -11.4 | -3.3 | 69.6 | 34.0 | 0.7 | 0.7 | 1.0 | 2.1 |
| 두산중공업 | 1,399.9 | 14.3 | 11,950 | 1.3 | 9.1 | -20.1 | -22.1 | -1,437.5 | 9.1 | 0.5 | 0.4 | 1.4 | 5.0 |
| 두산인프라코어 | 1,748.5 | 20.1 | 8,400 | -1.2 | 2.3 | -16.4 | -3.3 | 5.8 | 5.3 | 0.9 | 0.8 | 17.3 | 15.9 |
| HSD엔진 | 147.3 | 3.7 | 4,470 | 0.0 | 5.5 | 20.2 | 74.0 | N/A | N/A | N/A | N/A | N/A | N/A |
| 한국항공우주산업 | 3,148.4 | 12.1 | 32,300 | 0.3 | 8.8 | -20.5 | -31.9 | 37.8 | 23.3 | 2.8 | 2.5 | 7.4 | 11.6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1,753.7 | 14.1 | 33,700 | 2.9 | 14.4 | 32.7 | -5.2 | 87.4 | 23.9 | 0.8 | 0.8 | 1.0 | 3.4 |
| LIG넥스원 | 826.1 | 9.1 | 37,550 | -1.8 | 22.1 | 16.3 | -37.2 | 150.5 | 22.6 | 1.4 | 1.4 | 1.3 | 6.2 |
| 태웅 | 223.1 | 5.2 | 11,150 | 0.0 | 4.2 | -28.8 | -42.4 | N/A | N/A | N/A | N/A | N/A | N/A |
| 동성화인텍 | 221.3 | 4.7 | 8,200 | 1.5 | 15.8 | 8.0 | 62.4 | -20.7 | 32.6 | 3.1 | 2.9 | -13.5 | 9.2 |
| 한국카본 | 313.0 | 13.7 | 7,120 | -0.8 | 8.9 | 13.2 | 32.8 | 72.5 | 19.8 | 1.0 | 1.0 | 1.6 |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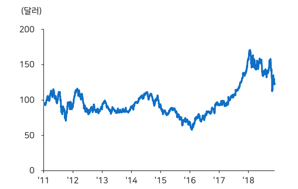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9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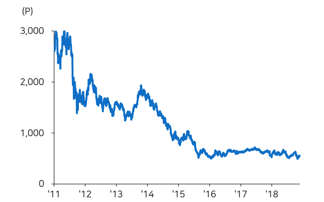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 +6.17 130.77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현대오일뱅크, 상장 '재시동'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함. 이는 다섯 단계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증권 발행에 지장이 없는 제재 수위임. 경징계 조치로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을 전망임. 내년 1분기 상장이 예상됨. (한국경제)

### 한·중 '블루오션' LNG선 시장 패권 경쟁 본격화

중국 최대 민영조선소인 양즈장조선은 일본 미츠이 조선사와 합작사를 설립, 대형 LNG선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첫 시장진출이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나서, 현재 1.82억달러 수준의 LNG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대형 LNG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음. (EBN)

### 현대중공업 노사, 협상재개 3주째…여전히 난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돌입한 파업을 오는 27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향후 중앙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파업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이번 파업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단협 난항에 대한 항의성 파업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상황임. (EBN)

### FPSO market picking up wind

컨설팅기관 Energy Maritime Associates(EMA)에 따르면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FPSO 시장 회복이 전망됨. 지난 2년간 FPSO 시장은 조용했으나, 올해 11기 FPSO가 계약됨. 70~90달러 유가에서 22년까지 13~17기 FPSO, 50~70달러 경우 10~12기 FPSO가 계약될 전망이며 신조 발주가 선호됨. (Upstream)

### 中, 저가 수주 후회

독일선사 Reede Nord MD Kurt Klemme에 따르면 중국 조선업체들은 원가 이하로 너무 많은 선박을 건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알려짐. 따라서 향후 중국 조선업계에 대규모 신조선 발주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함. 지난 5월 중국 Zhejiang Ouhua Shipbuilding이 중국 조선업계를 대변한다고 분석함. (선박뉴스)

### PC 선사가 IMO 2020 최대 수혜자

Deutsche Bank에 따르면 IMO 2020 규제의 혜택을 PC선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다고 전망함. 특히 Scorpio Tankers 같은 PC선 전문선사 수혜가 기대됨. 또한 LR2 탱커와 MR탱커 운임이 올해 최고수준으로 오르고 있음. 원유저장용 탱커 운임도 상승하고 있어, 탱커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임.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